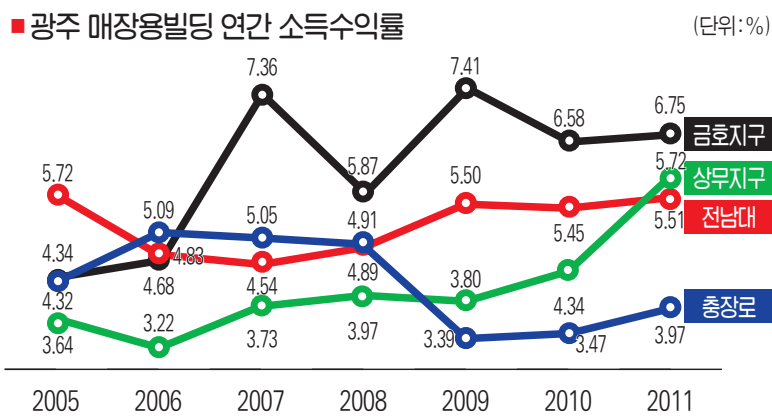


광주 상가 수익률 금호지구 가장 높다

6.75% 소득...상무·전남대·봉선지구 순

금남로 사무실·충장로 매장 25% 비어



금호지구가 광주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변화가인 상무지구는 비싼 임대료 탓에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았다. 14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1년 상업용빌딩 수익률·공실률·임대료 등을 조사한 결과, 광주지역 매장용 빌딩 평균 소득수익률은 5.00%로, 전년보다 0.63%포인트 상승했다. 오피스빌딩 소득수익률은 2.79%로 전년보다 0.53%포인트 올랐지만, 전국 평균(5.41%)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 7대 대도시 가운데 대전(2.23%)에 이어 가장 낮았다. 또 지난해 투자수익률은 오피스빌딩의 경우 2.32%, 매장용빌딩은 5.27%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금호지구(소득 6.75%, 투자 12.04%)로 조사됐다. 장사가 잘돼 수익이 많이 났고, 투자가치도 높다는 것이다. 특히 금호지구는 투자가치가

광주 평균(5.27%)의 2배를 웃돌았다. 금호지구 다음으로 소득수익률이 높은 곳은 상무지구(5.72%)였고, 이어 전남대(5.51%), 봉선지구(5.07%), 일곡지구(4.53%), 충장로(3.97%), 첨단지구(3.25%) 순이었다. 상무지구의 수익률 개선이 두드러졌다. 지난 2006년 3.22%를 기록했던 상무지구는 해마다 성장해 2010년 4.34%, 지난해 5.72%로 5년 사이에 2.5%포인트나 상승했다. 전남대(2009년 5.50%, 2010년 5.45%, 2011년 5.51%)와 일곡지구(2009년 4.73%, 2010년 4.53%, 2011년 4.53%)는 소득율이 4~5% 선에서 유지됐다. 반면 충장로는 2006년 5.09%에서 2007년 5.05%, 2008년 4.91%, 2009년 3.39%, 2010년 3.47%, 지난해 3.97%로 5년새 1.12%포인트 떨어졌다.

투자수익률은 전남대(7.34%), 상무지구(6.16%), 봉선지구(5.42%), 일곡지구(3.66%), 첨단지구(3.64%), 충장로(2.76%) 순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이 높은 금호지구는 공실률이 0.0%로 빈 상가가 없었다. 봉선지구(공실률 2.3%)와 일곡지구(4.6%)도 빈 상가를 찾기 어려웠다. 반면 충장로(25.7%)는 4곳 중 1곳이 비어 있었다. 광주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평균 18.5%로 전국(평균 7.6%)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도심 공동화의 직격탄을 받고 있는 동구 금남로의 빌딩 사무실은 공실률이 26.1%로, 사무실 4곳 중 1

곳은 비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구와 상무지구도 각각 15.7%, 13.0%로 전국 평균보다 2배가량 높았다. 임대료는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광주에서 매장용빌딩의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충장로로 m당 2만3700원이었다. 이어 봉선지구(2만100원), 일곡지구(1만5800원), 전남대(1만8900원), 금호지구(1만8100원), 상무지구(1만9500원), 봉선지구(1만100원) 순이었다. 오피스빌딩은 상무지구가 m 6800원, 금남로 5400원, 북구 4900원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아파트 분양 붐 기지개 한국건설이 지난 13일 광주시 서구 월드컵경기장 맞은편에 문을 연 '봉선3차 한국아파트' 주택전시관에 이틀간 6000여명이 방문, 북새통을 이뤘다. 광주의 교육특구인 남구 봉선동에 공급되는 '봉선3차 한국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12~15층 6개동 2799가구다. 전체 가구가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면적 84㎡(37형)로 구성됐다. 분양 문의 1577-8733. <한국건설 제공>

2월 광주·전남 실업률 하락 1.0%, 0.8%P 줄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상황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2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취업자는 67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1000명(4.8%) 증가했으며 고용률도 55.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사업개업공공서비스(9000명), 전

가·운수·통신·금융업(6000명) 등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부문에서 취업자가 2만2000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는 2만2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000명(-20.7%) 감소해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했다. 전남지역도 취업자 수가 86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6000명(3.1%)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60.

4%로 전년 같은 달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부문 중 건설업(8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8000명)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실업자는 2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00명(22.0%)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2.5%로 전년 같은 달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새롭다! 즐겁다!
뉴질랜드 어학연수

현지 학생들과 수업하며 생생영어배워요!

광주일보가 뉴질랜드 어학연수 전문기관인 한뉴문화교육센터(www.hannew.org.nz)와 공동으로 현지학생들과 수업을 받는 정통 영어 어학연수를 실시합니다.

특징1 현지학교 매일 수업참여

기존 '해외여행' 연수가 아닌, 새학기를 시작하는 뉴질랜드 학생들과 현지 학교 교실에서 연수기간 내내 정규수업을 받으면서 영어실력을 키운다. 연수생의 어학수준에 맞게 학년을 배치하며 오전엔 별도 영어교육도 실시한다.

특징2 학생 집에서 매일 홈스테이

연수생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현지 학생들의 집을 선별해 연수기간 내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홈스테이를 갖는다. 교사가 주 1회 가정방문을 통해 학생의 생활상황도 체크한다.

특징3 연수생 안전에 만전

홈스테이 전담 선생님이 있어 연수생들이 현지 생활에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24시간 학생보호 시스템을 운영한다. 현지 학교 교직원과 한뉴문화교육센터 교직원들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연수생들의 학교생활을 밀착 관리한다.

특징4 연수비용 최소화! 국내 최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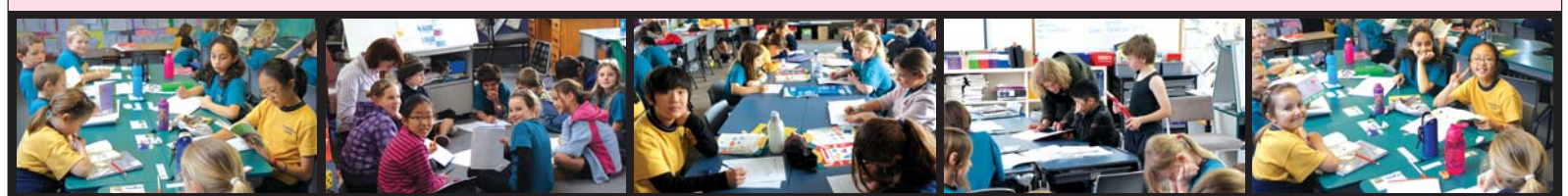
올해로 네번째를 맞는 이번 연수는 광주일보가 지역 글로벌 인재육성 차원에서 현지 연수기관과 직접 교류로 연수의 품격을 높이고 비용을 최소화 했다. ●항공료 포함 498만원

| 연수기간 | 2012년 7월 26일 ~ 8월 23일(4주)
| 연수학교 | Howick Intermediate School 등 6개교
| 연수대상 | 초등 3~6학년, 중학생 1~3학년

| 연수인원 | 선착순 50명
| 신청마감 | 2012년 3월 23일
| 문의 | 062-220-0555 · 018-693-6604

| 주 최 | 광주일보사

| 주 관 | 한뉴문화교육센터



“원산지 한국 맞나요” 한-EU FTA 발효 후 유럽 검증 요청 급증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 수출 물품을 상대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가 15일 발효되면 이러한 추이는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여 국내 기업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14일 관세청이 집계한 'FTA별 수출검증 요구현황'을 보면 지난 2007년 이후 이달 5일까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유럽연합(EU) 등 FTA 체결 6개 권역에서 들어온 수출검증 요청은 17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원산지 검증요청

은 2007년부터 3년간 매년 7건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8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벌써 59건이 접수됐다. 특히 EU는 작년 7월 FTA 발효 후 6개월간 41건이었던 원산지 검증 요청건수가 올해 1~3월 55건으로 크게 늘었다. 월별로는 1월 10건, 2월 21건이었고 3월 들어서는 닷새 만에 24건이 접수됐다. 작년과 올해 원산지 검증요청 건수를 국가별로 보면 스위스가 27건으로 가장 많고 포르투갈·폴란드(이상 8건), 이탈리아·슬로바키아(이상 7건), 헝가리(6건), 프랑스(4건) 등 순이다.

반면 칠레(2건), 아세안(15건), 인도·싱가포르(이상 0건) 등은 2007년 이후 5년여간 신청건수가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의 임길호 사무관은 “EU 등 선진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은 중국산 제품의 한국산 둔갑을 우려한 임의 상품추출(random) 방식이어서 실제로 크게 문제가 된 사례는 많지 않다”며 “그러나 FTA로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원산지 검증요청은 급증할 것으로 보여 특혜관세 중단 등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업들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광양제철소장 백승관씨

포스코는 제10대 광양제철소장으로 백승관(56·사진) 전무를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취임식은 오는 19일 광양제철소 이노베이션센터 강당에서 열린다. 백 신임 소장은 대구 출신으로 영남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81년 포스코에 입사해 광양제철소 제1부 1주공장장·제2부 공장장 등 1985년부터 2006년까지 20여년간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했다. 전임 김준식 소장은 사내이사로 추대됐으며, 광양제철소 부소장 4명은 전원 유임됐다. /동부취재본부=박정욱기자 pyj4079@

뉴스 브리핑

광주테크노파크 車·금형 3D설계 교육생 모집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는 오는 25일까지 자동차·금형산업 3D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략산업 예코-에듀 프로젝트 사업'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자동차설계 과정(20명) △금형설계 과정(20명) △자동차·금형 부품설계 및 가공전문 과정(25명) 등 3개 과정 65명이다. 광주지역 미취업자 및 취업 회

망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또 교통비, 식비 등 매달 연수비도 지급한다. 교육 기간은 4월2일부터 6월 29일까지 3개월간이며, 교육을 마치면 곧바로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고용예약제로 운영된다.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itp.or.kr)를 통해 접수 받는다. 문의 062-602-7252.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건설 스마트 스위치 '레드닷 디자인' 상

금호건설(대표이사·사장 기욱)은 14일 자체 개발한 다기능 스마트 스위치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다기능 스마트 스위치는 일괄 소동, U-보안, 대기전력차단, 가스차단, 외출모드, 보일러차단 등의 설정 기능이 한군데 모여 있는 멀티 스위치다.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굿디자인 마크 수상에 이어 2012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

하면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금호건설은 현재 분양을 앞두고 있는 전북 익산 신동 견본주택에 다기능 스마트 스위치를 설치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진행 중이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다. 디자인·혁신성·환경에 대한 배려·기능성·사용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매년 수상작을 발표한다. /박정욱기자 jwpark@

▲ 코스피지수 2,045.08 (+20.04)
▲ 코스닥지수 538.86 (+0.4)
▲ 금리 (국고채 3년) 3.52% (-0.04)
▲ 원·달러 환율 1,126.1원 (+4.6)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